

지역 소식통



부안경찰서, 22개 초등학교 대상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부안경찰서는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안군 2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개학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부안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각급학교, 녹색어머니회, 모범 운전자 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펼쳐진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모든 학교가 개학함에 따라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기획된 이번 캠페인에는 아이들이 사용할 있는 문구류, 점단지, 예교류품 등 다양한 교통안전 홍보용품을 배부함으로써 어린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동민 서장은 "이번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한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에 고마움을 표하며, 교통안전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수질오염총량 대응책 마련 내수면 어업인 간담회 가져

정읍시는 수질오염총량과 관련해 지난 24일 내수면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읍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실태와 향후 추진계획과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2016년 정읍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결과 축산계와 양식계의 오염부하량이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축사 제한과 양식계의 오염부하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2020년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이날 이와 같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실태를 이해 당사자인 내수면 어업인에게 설명하고, 불가피하게 오는 10월 11일부터 내수면 어업을 위한 개발행위와 농지전용 허가를 제한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 할당 부하량을 초과하게 되면 도로와 공간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물론 20세 이상의 연립주택도 지을 수 없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가능한 정읍발전 전을 위해 이번 조치를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현장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고창군, 8개 면사무소 '맞춤형 복지차량' 전달

고창군은 지난 25일 군청 광장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군은 올해 가솔린차(스파크) 8대를 보건복지부와 자체 예산을 통해 조달 구매해 지역 내 8개 면사무소(아산면, 공음면, 대신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에 배정했고 고창읍에는 전기차(SM3)를 다음달 중 배정해 현장맞춤형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

고 전했다.

또한 방문 상담이 잦아 위험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워치(IT기기, 복지공무원 안심자키퍼)도 이달 중 보급 예정이다. 이 기기는 응급호출, 현장 상황 녹취, 경찰 위치 확인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의 핵심은 '찾아가는 서비스'로 맞춤형 복지차량 지원은 이동력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복지사업과 찾아가는 복

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업무, 민관협력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우정 군수는 "복지차량으로 주민의 복지욕구에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 이동력이 확보된 만큼 현장중심의 복지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복지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위기에 빠진 군민이 없이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정책을 펼쳐갈 것"이라며 "아울러 민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구석구석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은 지난 25일 성내면 신림리 낙산마을회관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속골소하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창군, 속골소하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성내면 신림리 낙산마을회관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속골소하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주민들에게 실시 설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사 설계 완료 전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해 체계적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현황과 당부사항 등을 설명하며,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했다.

속골소하천은 그간 주민과의 대화와 민원 건의사항으로 정비요청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고창군은 소하천 지정과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 끝에 올해 소하천정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공사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왔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가을철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실시

농기계 제조업체 4곳 봉사반 편성 내달 14일까지

부안군은 가을철 영 농기 이전에 농업기계를 점검·정비해 농업기계 고장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2017년 가을철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를 한다.

이를 위해 군은 이번 순회수리봉사는 농기계 제조업체 4곳(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 IS엘트론, 신흥기업)별로 기사 1~2명씩 봉사반을 편성하고 차량 1대를 동원해 진행된다.

순회수리봉사 일정은 국제종합기계의 경우 오는 30일 행안면 소재 부안대리점에서, 동양물산기업은 9월 4일 부안읍 소재 부안대리점에서, IS엘트론은 9월 14일 부안읍 소재 부안대리점에서, 신흥기업은 9월 4일 동진면, 9월 5일 계화면에 수리봉사를 실시한다.

순회수리봉사에서는 트랙터, 콤팩트, 건조기, 관리기, 경운기 등 가을철에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를 점검·수리할 예정이다.

농기계 점검 및 정비는 무상으로 실시하고 부품을 교체하면 부품값은 실비로 받으며 현장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또는 제조업체에 인계해 수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 수리, 응급처치 방법,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병행해 이뤄진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전북도,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 시행

11월까지 순차적 고향방문

고창군과 전북도가 시행하는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가 시행됐다.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은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모국방문 횟수가 적은 가정, 거주기간이 오래된 가정, 자녀가 많은 가정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평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시행하고 있다.

군은 2,400만원의 예산으로 선정된 7가정에 1가정 당 4인기준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 현지교통비 등을 지원했으며 선정된 가정은 원하는 시기에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 고향에 체류할 수 있다. 출국은 배우자와의 동반이 원칙이며, 자녀는 수와 상관없이 지원하고 개인일정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고향을 방문한다. 올해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고향에 다녀온 결혼

이주여성 진00씨는 "고향의 부모님과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해 늘 그리고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너무 기쁘다"며 "좋은 기회를 얻은 만큼 지역사회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캠프' 개최

가족 간 소통의 장 마련

정읍시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캠프'를 가졌다.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내장산국민여가캠핑장에서 진행된 캠프는 가족 간 소통의 장을 제공, 가족 간 친밀감을 높이고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가정이 안정되고 화목해야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음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근간인 가정이 밝고 건강해야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 수 있다"며 "가족 간 소통의 장을 제공, 밝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캠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3자녀 이상을 둔 5가족을 비롯하여 총 14가족 58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가족 소개에 이어 천연벌레 퇴치제 만들기 체험 등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소통의 시간과 정읍천문연구회 발자락이아기 체험, 텐트에서의 야외 취침, 태산섬비문화원 견학을 함께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감을 다졌다.

참가 부모들은 "평소 바쁜 일상으로 아이들과 마주보고 이야기할 시간도 부족했는데, 1박 2일 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쌓고 힐링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송주(8)군은 "엄마 아빠와 함께 레크리에이션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고 자주 이런 캠프가 마련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캠프가 자녀를 비롯한 가족과 더 잘 소통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Champong.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부안강산뽕주 Premium Otdi Wine'.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